

# 第三十七回國會 民議院會議錄 第四十八號 民議院事務處

檀紀四二九年十一月二十二日(水) 上午十時

議事日程 (第四十八次會議)

- 一、憲法改正案
- 二、國務總理出席要求에 關한件
- 三、反民主行爲者公民權制限法案 第一讀會

討議된案件

- 一、憲法改正案
- 二、國務總理出席要求에 關한件

(上午十時十五分開議)

○議長(郭尙勳) 座席을 整頓해주세요 第四十八次會議을 開議합니다

事務處報告가 있겠습니다 될수있는대로 肅正 席을 整頓해주세요

○議長(郭尙勳) 報告를 드리겠습니다 (報告事項을 未定인 記載)

○議長(郭尙勳) 座席을 整頓해주세요 지금 議事日程 第一項을 上程합니다 議員

을 한번 調査하겠습니다 復道에나 休憩室에 對해서 國會議員을 喚하 議事堂으로 呼여와주세

요 아저씨 三分之二之線에 達하지 못합니다 復道에나 休憩室에 對해서 不足한데 조금 더 가더라도 成員

되는 것을 보아서 表決에 부치겠습니다 復道에나 休憩室에 對해서 國會議員을 喚하

어와 주세요 지금 名牌를 보면 三分之二가 넘 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着席한분은 三

分之二가 못입니다 그러니 밖의 제치는분 喚하

自己라리에 모두 着席해주시게 바랍니다 自己 座席에 着席해주세요

(憲法改正案)

(上午十時二十二分)

○議長(郭尙勳) 그러면 成員의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議事日程 第一項 憲法改正案의 表決을 宣佈하겠습니다

表決에 들어가기 전에 暫時 여기에 對해서 方式이라든지 그것을 萬一을 爲해서 한번 더 議事局長으로 하여금 說明하게 하겠습니다 議事局長 나와서 이 方法에 對해서 說明해주 세요

○議長(郭尙勳) 이國會에서 記名投票는 이 兩欄으로 區分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可否欄에

는 오를便속에 可라는 글자를 印刷해 두었고 印된 條에 否字를 印刷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萬一 議員 여러분께서 이 憲法改正案을 贊成

하심에에는 可라는 글자 밑에 즉 投票議員姓名 記載欄에 投票하시는 議員의 姓名을 記載 해 주시면 그것이 卽 贊成의 表示가 될것입 습니다 그리고 萬一 이 憲法改正案에 反對하신 경우

에는 否라는 글자 밑에 投票하시는 議員의 姓名을 記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나가는 可 否 어느쪽이고 이것을 지을 필요가 있습니다 지을 필요없고 다만 이 姓名 衡字를 記載함 으로써 贊成과 反對를 表示하게 되는것입니다

다 ○議長(郭尙勳) 다 아셨지요? 改憲의 可하다 고 하시는분은 可字 밑에다가 記名을 하시고 否하다고 하시는 분은 否字 밑에다가 記名을 하시면 되는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形式 밑하자면 條文整理이라든 지 形式과 字句의 整理는 法制司法委員會에 다 가 一任하는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곧 表決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監票委員會가 나옵니다 選出해야 하겠는데 議長이 自辟해도 좋습니까 (나! 나! 하는 이 있음)

그리니 異議없으시면 自辟하겠습니다 監票委員 에 金允植 朴煥生 李接雨 黃仁元 이 네분 나

와서 受舌중 해주세요 金允植議員 나오셨나요 또 朴煥生議員 또 李接雨議員 黃仁元議員 黃 仁元議員! 네분 좀 喚하와주세요 좀 喚하

나오세요 그러면 投票를 開始하겠습니다 (上午十時三十五分投票開始)

呼名하겠습니다

投票안하신분 없습니까?  
呼名에 參席을 해야겠는데 지금 呼名이 많 습니다

그러므로 조금 더 기다리겠습니다  
投票函달는것을 조금 더 기다리겠습니다

投票안하신분 있거든 빨리 들어와서 投票하세요  
요 復道나 休憩室에 계시는 國會議員들 빨리 들어와서 投票하세요

投票안 하신분 계시면 지금 빨리 하세요  
그러면 아마...

지금 投票안하신분이 여러분 계신데 旅行中에 있는 분도 있고 여러가지 事情으로 못하신 분이 있습니다  
마는 調査해보니까... 그러므로 이 상 더 기다리지않고 投票函을 지금 달겠습니다

(上午十一時 投票完了)

그러므로 卽時 投票函을... 名牌를 調査하겠습니다

(上午十一時 開票開始)

(上午十一時五分 開票完了)

名牌數字는 二百이 올시다  
投票하신 분이 二百名의 올시다  
조용하세요 投票結果를 報告하겠습니다

可에 百九十한票 否에 한票 無効에 여섯票 棄權에 두票입니다

그러므로 이 改憲案은 可決數字는 三分之二數가 百五十六名이 올시다

그러므로 三分之二以上이 되므로 이 改憲案은 可決된것을 宣布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可否의名單은 會議錄에다가 記載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贊成投票議員

姜鳳龍	姜昇求	桂珖淳	高奇峯	尹 潭	尹明運	尹炳漢	尹正九
高湛龍	高夢尤	高永完	郭尙勳	李 京	尹都燮	尹宅重	尹亨南
郭泰珍	權仲敦	金光俊	金度演	李 尚信	李錫基	李相敦	李相冕
金東郁	金京鎬	金命洙	金炳洙	李鍾純	李貞遠	李鍾南	李鍾麟
金秉鎭	金 山	金相欽	金錫源	李忠煥	李泰鎔	李必善	李春基
金錫柱	金善太	金成淑	金永求	林文碩	張 勉	蔣顯	林其台
金泳三	金永善	金永修	金英煥	田石鳳	錢鎮漢	全然相	鄭南奎
金玉衡	金溶珍	金容煥	金元萬	鄭文采	鄭成太	鄭一亨	鄭在沅
金允植	金應祚	金應柱	金義澤	鄭圭埴	曹泳珪	曹海永	鄭憲柱
金載坤	金鍾海	金俊燾	金俊淵	曹逸煥	曹在干	趙漢栢	趙一載
金滂泰	金昌洙	金采庸	金千洙	朱 熙允	朱采煥	朱耀翰	陳馨夏
金判述	金學俊	金 勳	羅容均	于世基	崔慶植	崔成旭	崔泳謹
文命浩	閔寬植	閔壯植	朴權熙	崔泳斗	崔慶浩	崔成旭	崔泰能
朴起鐘	朴珉基	朴炳培	朴順天	崔海鎔	太完善	韓根祖	韓相駿
朴海植	朴海允	朴亨根	朴忠模	韓鍾建	咸鍾贊	許 添	立錫虎
朴煥洙	裴聖基	白南薰	徐東辰	洪珉杓	洪吉善	洪龍駿	洪翼杓
徐珉濠	徐範錫	徐廷貴	徐正元	洪正杓	洪椿植	黃南八	黃仁元
徐泰源	成晉善	成元慶	成泰慶	黃鶴性	黃漢洙	黃虎榮	
孫致浩	宋能云	宋泳琮	宋乙相	金始顯			
申基福	申仁雨	申正浩	申駿遠	無 効	六 票		
慎重夏	申河均	申鉉燾	沈吉燾	棄權	二 票		
安萬福	梁德仁	梁炳日	梁一東	出張·請暇·缺席不參議員			
吳相植	吳正國	禹燾珪	禹弘珩	金基喆	金命潤	金文玉	金相敦
禹熙昌	柳光烈	劉聖權	劉沃祐				
柳 津	俞鎮靈	柳珍山	柳 青				

- 金洗榮 金佑秤 金在淳 朴基日
- 朴鍾吉 朴凌圭 朴忠植 徐相日
- 申珥休 安東濬 尹吉重 尹在根
- 李相詰 李在鶴 李在賢 李載濬
- 李丁錫 張澤相 全亨山 鄭吉永
- 鄭商熙 曹明煥 趙鍾吳 崔爽林
- 崔天 崔致煥 崔夏永 洪文中
- 洪英基

一(國務總理出席要求에 關한件) 一

(上午十一時八分)

○議長(郭尙勳) 다음은 議事日程 第 項을 上程합니다

國務總理出席要求에 關한件의 上程을 提議者인 尹濟述議員 나와서 說明하세요

○尹濟述議員 張嘯根 海外逃避事件에 關해서 알찌기 그 責任所在을 가지요 法務와 內務와 또 司法府의 三者에 責任이 있노라

曹法務의 上으로세 우리에게 傳혀주었고 또 그것이 國民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責任이 辭表를 내고 나가야 할 責任이 있고 辭表를 表하고 그 때로 그 자리에 坐하지 않고 辭表를 表하고 그 때로 그 만으로써 責任을 止한다고 하고 그 때로 공제대

는 責任이 있을지는 알수없어 그 때로 傳혀가 고 나가기 좋아하든 사람은 다 사퇴하면 玄錫 虎 內務部長官은 三十八日만에 또 十五日

만에 두 長官職을 지는 거문히 내 놓고 물려가 고 알찌기 責任이 있다고 世間에 말았던 曹 法務가 그 때로 앉았는 이 오늘에 있어서

이거 우리 國會에서 曹法務가 直接 檢察에 責任이 있는 監視를 責任이 있는 檢察總長의 辭退를 要求한 바 있고 萬一 그것이 本會議에 貫徹되지는 아니할 때에 新民黨에서는 重大한 覺悟를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까지 警告해주 었던 것이 아닐까 그 때로 앉았는 것으로 해서 자기에게 對해서 治安局長이나 市警局長 程度의 引責으로 해서 이것을 마칠려고 하지 않느냐 하는 이마 당 에 있어서 이것은 責任이 있다고 말하는 曹法 務에 물기보다도 內閣의 首班인 張總理에게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물기 위해서 張總理의 出席을 要求하는 것이 아닐까

그러면 나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議事日程에 물려서 出席한다고 해서 나오실 것으로 張總理로서 먼저 自進해서 나와서 이 일이 되었으니 그렇게 알아주시요 한 때는 이 國의 前途에 우리도 意思를 한번 물어본다 는지 그러면 사실은 뜻이 다른 張總理로서

있어야 할 것이라 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시간도 더 말하고는 하야 張總理에게 또 어떻게 하느냐라고 이거에 時間을 썼는지 또 안하고 또 重大한 案件이 山積해 있는 國會의 眞의를 생각하면 時間을 또 썼는지 이렇게 演說할 時間이 있다고 虛贊한다 것이 未安하나 사람 에 關한 일... 生理적으로도 不得不 아침에는 어

디할 다나 나와야 하고 또 食前에는 祈禱도 해야 하고 食後도 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

리 國會의 生理도 만드지 치려야 할 것은 아무 리 마른일이 있더라도 치려야 하기에 張總理을 나오라고 한 것입니다

알찌기 張總理은 國會의 亂入事件이 있어서도 한번은 나와서 未安하다고 하는 自己의 責任所在을 밝히면서 우리에게 얘기해주어야 할 것이요 또 자기까지는 만드지 있어야 하는 문제는 좀 疑問이나 政治道義로 본다고 하더라도 內閣의 閣僚들 多量으로 更迭될 때에 만드지 國會에 나와서 한번은 얘기할 수도 한 것이 아닐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張總理가 나와서 얘기가 없고 또 이렇게 重大한 事件이 있어서 그사 閣議에 決定으로만 辭表를 받고 그 때로 保留시킨다고 하는 것은 우리 國會에서는 그 때로 納得하기 어려운 것이 아닐까 그런 까닭에 이렇게나 다 張總理의 出席이 내 의의 불충분한 罪愆가 아니

라 손 數으로써 否決이 된다고 한 것 같은데 國家는 이 分明히 國民에게 알리우어야 할 責任所在을 內閣... 張內閣으로서 알리지 않고서 그 때로 넘어갈려고 하는 것이라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때문에 이번의 張總理가 나오셔서 이 責任問題를 어디까지 정했

또 한가지로는 이렇게 우리의全體...全體가 될는지 모르지만 國民의意思를萬一 손數로써 拒否시킨다고 하면은 우리로서는 일찌기 警告해서 우리의 決議를 表明한바 있는 까닭으로 해서 設或 이 重大한 案件을 많이 두고 우리 時間을 다투어서 나가는 마당에 더욱 時間을 浪費하지않기 爲해서라도 速히 張總理는 나와서 이자리에서 責任을 褻할 必要가 있다 고 나는 보는것이 옳시다 때문에 張總理가 나와서 내가 提案말씀 드린것을 남겨두고 干先 여러분께서 많이 贊同하셔서 이案件을 可決시켜주시기를 바라고 이걸로써 물러가는 것이 옳시다

○議長(郭尙勳) 여기에 反對發言을 要求한 분이 있습니다

鄭南奎議員 나와서 말씀하세요

○鄭南奎議員 지금 張總理를 出席을 시켜가지고 張曜根의 逃避事件에 들은 責任을 묻자는發言이 있었습니다 本議員은 여기에對한 反對의 發言을 받음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勿論 張曜根이 逃避한대있어서는 行政府로서 責任을 져야 한다는것은 잘 아는 事實이을시다 責任을 져야 되기때문에 內務部長官이 更迭이 되었습시다 大法院長을 물러다가 여기에對한 法律의 限界를 물었고 그다음에는 內務部長官 또한 法務部長官을 물러다가 따졌습시다 모두가 責任을 진다는것을 말씀들은바 있었습시다 그뒤에도 豫決委員會에서 綜合審査때만 하더라도 張總理가 나와서 여기에對한 說明도 했습시다

우리가 國家豫算을 다루고있는 重大한 議案이 있고 또한 오늘은 憲法을 改正하는 重要한 段階입니다 山積같이 쌓여가지고있는 國事가 泰山같은데 두번이나 세번이나 물러다가 따지고 거기에對한 眞相을 알고 거기에對한 責任을... 限界를 가려가지고 內務部長官까지도 更迭한 마당에도 張總理를 물러다가 묻는다 해보았던들 結果의으로 오는것이 내내 그말밖에 없을것입니다

이러니 本議員은 말하는것도 따지는것도 부르는것도 한번 두번이지 다섯번이나 여섯번이나... ○金永修議員(의석에서) 집어치워! 집어치워!

○議長(郭尙勳) 앉으세요 앉으세요

○鄭南奎議員(계속) 따져 보았던들 結果로는

○金永修議員(의석에서) 이 개새끼야!

○鄭南奎議員 개새끼가 누가 개새끼야!

(場內騷然) ○議長(郭尙勳) 發言中止해요 退場해요 退場해

요 發言中止해요!

退場해요...退場하십시오... (場內騷然)

(그냥해요) 하는이 있음

發言中止해요...退場해요 退場해요... 金永修

議員 退場해요 (場內騷然)

오늘 한두번이 아니고 적어도 發言이있으면 正

當하게 청구해서 한것이요 적어도 神聖한 議事堂內에서 개자식이니 소자식이니 이런 禽獸 悻說을 한다는것 이것은 議事의 責任上 여기 에두고 議事進行을 한수가 없으니가 退場하십시오 退場하십시오 (場內騷然)

○劉沃祐議員(의석에서) 무슨法에 의해서 退場을 한다말이예요?

○議長(郭尙勳) 여러분이 偏黨心도 限度가있지

이렇게 시리 議事堂을 분란하게 만들고 不良 輩類도 못할 그런言辭를 쓰는 사람 그냥 남겨두고 나는 議事進行을 한수가 없습시다

(場內騷然) 앉으세요 같이 떠들면 똑같은 사람이되고 말

아요...議長한테 말기고 앉으세요 이 弊習이

말면 앞으로 議事進行 안됩니다 누구나한것

없이 다 일어나서 개자식 소자식하고 이렇게

紊亂하면 나는 議事進行 責任 못지겠습시다 나

가세요 退場하십시오 退場해요...안돼요

(場內騷然)

(주의를 시키고 그냥해요) 하는이 있음

주의를 시키는것이 한두번이 아니예요 金永修

議員에 대해서는 번번히 그랬습시다

○金永修議員(의석에서) 오늘 처음 받았습시다

(場內騷然)

○議長(郭尙勳) 退場하기전에는 司會였습시다

여러분이 바꾸어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新黨이

올라와서 發言하는가운데에 民主黨이라든지 다른

四

無所屬이든지에서 개자식 소자식하고 우리가  
平素에 우리간에는 받지 못할 그런 言動이 있  
을때에 여러분 생각이 어떻겠습니까 나는 공  
정한 議事를 進行하고 또 議事堂의 神聖을  
保障하기 위해서...

(무엇이요)하는이 있음)

(場內騷然)

여러분이 議長의 不信任을 내더라도 나는 이  
판트는 可會 못하겠습니까

(다음대로해요)하는이 있음)

(場內騷然)

(法에 그렇게 되어있어요?)하는이 있음)

(退場해요)하는이 있음)

(다음대로하소)하는이 있음)

이문제가 끝날동안 잠시 停會하겠습니까

(上午十一時二十九分會中中止)

(上午十一時三十二分繼續開議)

다시 續開합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金永修議員이 한두  
번이 아니고 번번히 그렇게해서 兩便의 感情  
을 挑發시킨것이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이사람이 명색이 國會議長으로서 참 될수있으면  
우리들이 議事堂에서는 國家를 위해서 私私감  
정을 떠나서 公정한 立場에서 하자는것이 내  
本務요 또 내가 힘쓰는 바이올시다

그래서 어느쪽이나간에 누구나간에 感情을  
일으키는 이런 말씀을 할때에 주의를 시키고  
停止를 시키고 이렇게 해내려왔습니다

그랬는데 오늘에있어서 金永修議員에게는 여러번 주  
의를 시켰습니다 오늘은 비록 한번이라고하지

만 오늘은 너무나신랄하게 나왔기때문에 주의를  
시키고 잠깐이나마 退場시켰는데 다시 續開하  
고 鄭南奎議員 發言을 계속하려면 다시하세요  
하시는 동안에 人身에 관계된다는지 남의 感  
情을 건드리는 얘기는 一切 조심해주시기바람  
니다

○鄭南奎議員(계속) 本議員의 發言이 波瀾을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金永修議員이...만 말씀이 있습니다마는 솔직  
히 말씀드립니다 저는...張棟樑이라는 사람의  
肝을 썰어서 먹어도 시원치않을 사람은 本議  
員일 것이예요 이런 정도로 내가...아시고  
나는 反對의 發言으로서 말씀 드렸습니다

○議長(鄭尙勳) 다음은 贊成發言에 曹泳洙議員  
發言하시요

○曹泳洙議員 제가 말씀을 하기전에 議長께  
要請하고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退場한 金永修  
議員을 다시 들어오도록 허락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國會法에 있어서도 주의를 시켜서 그 주  
의를 들지않을때에 議長이 場內秩序를 維持하  
기위해서 退場을 命하는것이 옳시다 물론 파  
지에 여러번 지나친 言動을 하고있는걸 저희  
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야마  
당에 退場했으니 만큼 議長께서는 雅量을 베풀  
어서서 다시 들어오도록 要請합니다

과거에 우리도 自由黨의 무지무지한 暴惡한  
國會에서도 우리는 싸웠습니다 또 승했습니다  
그런것은 郭尙勳議長이나 저나 여기에게신 民  
主黨에 所屬하고 계신 議員 여러분은 잘 記  
憶하시오

계실줄로 압니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本論에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겠음  
니다

責任의 문제를시다 우리는 개인인간 張勉總  
理가 예쁘거나 밋거나하는 그런 얘기로 誤解  
를 하시는분이 계시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  
리는 오늘 역사적인 憲法을 通過시켰고 또한  
이어서 우리들은 역사적인 이 革命完遂를 위  
해서 우리들은 힘써야할 처지에 있습니다 우  
리는 革命이 일어난 직후에 우리는 內閣責任  
制의 改憲案을 通過시켰습니다 과거에 不法  
無法을 恣行하던 李政權에 대해서 어린 獅子  
들은 抗拒를 했습니까 그러기때므로 우리는  
어디까지나 大韓民國의 前途가 責任있는 政  
治...責任政治制度로 나가야 이나라의 秩序維  
持를 確立하고 民主主義의 基礎 民主主義의  
基本的인 政治形態를 이루어 나갈것으로 우리  
는 確信했던 것이올시다

오늘 실지 內閣責任制度 아래 國務總理가 파  
연 어떻게 해야할것이나 하는것을 저희들은  
子孫萬代에 또는 全世界가 注視하고 있는 가  
운데에 우리는 우리나라의 內閣責任制度의 정  
당한 모습을 우리는 보여줘야 할 그러한 순  
간에 놓여있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는것이 올  
시다

그렇기때므로 親愛하는 議員 여러분 親愛하는 議員  
여러분! 尊敬하는 議長! 우리는 과연 이 責任所  
在에 대한...責任에 상당한 사람이 누구냐! 또

는 內閣責任制度에 있어서는 이렇게 한다면 그 모습은 우리는 示範해야 할 그런 段階에 있는 것이올시다

親愛하는 無黨에 계신 民主黨所屬議員 여러 분! 이리분의 연재 野黨이 되실는지 모읍니다 연세까지 계속하실는지 모읍니다 우리 新民黨 사관들도 연세까지 野黨에 있으는지 또 연세 與黨이 될는지 모읍니다 우리는 與黨이 되었거나 野黨이 되었거나 責任內閣制의 實踐過程 實踐形態를 우리는 子孫萬代에게 보여주어야 할 일속한 이 순간에 놓여있는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오늘을 우리가 內閣責任制度에 지는 國務總理가 總責任을 지는 것이요 또 國務總理가 國會에 대해서 責任을 지는 동시에 그의 政治行政에 대한것도 國會에 나와서 發言 하고 國會에 報告하는 議院內閣制의 體制를 갖추자 하는것이 우리의 목적이옵시다 결코 어느 自然人을 미워시 그사람을 기어이 罷免시켜야 한다는 그런 感情에 사로잡힌 그런 사람같은 아니라는것을 여러분이 널리 諒해주시고 또 한가지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豫算決算委員會에서 이번에 國會法이 改正된것으로 해서 一問一答式으로 國務總理에 대해서 國政에 관한 政策質疑을 하기로 했었으나 유감스럽게 與黨에게선 분들의 沮止로 말미암아서 일우어지지 못했읍니다

또 그것도 유감이지만 더욱 유감스러운 것은 이와같은 事態가 發生했을때에 張 勉國務總理가 國會의 豫算決算委員會에 나왔을때에는 적

이도 구운 말도 없고 면죄 받지 自己의 責任所在 또 이 不美한 事件에대한 미안스럽다는 말만하다가 없이 지나갔다는 점 또한 거기에 대한것을 追窮하니 道義의으로 미안한것은 집이나 이렇게 말씀을 했읍니다

國務總理가 學校校長이 아닌 이상... 道義문제 國會議에서 제기한수 있었지만... 그러나 不美한 點에 대해서 道義云云하는것은 學校校長 先生의 學校學生에게다가 할수는 있겠지만 本會議가 되었은것에 道義의責任云云으로 끝을 맺는다는 점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나는 생각합니다

國務總理은 아니라 民議員個人個人的 아니 行政公務員의 個人個人的 言動이 결코 自己의 職務과 그 職務과 연재나 어느 瞬間이나 分離되어있을수 없다는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요 따라서 張 勉國務總理는 이자리에 나와서 大韓民國의 앞으로 걸어나가는 內閣責任制度의 國務總理와 國會간의 限界를 確立시키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보여주는 瞬間으로 알고 與黨에 계신 여러분에게서도 같이 贊同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議長(郭尙勳) 지금 曹泳洙議員이 이제 議長의 命令으로 退場한 金永修議員 다시 들어 오시 해당하고 要請하셨습니다 毋論 사람이 미워서가 아니라 場內秩序를 維持하기위해서 하는것이 아니라 그런것이 지금부터 없다고 하면 議長은 굳이 그지할 必要가 아무것도 없읍니다

그런지 四選議員 曹泳洙議員의 請을 들어서 退場을 시킨 金永修議員 다시 들어오는것을 許諾합니다

그리고 萬一에 그러한 일이 없었더라면 議長의 斷乎한 態度가 없었더라면 오늘 이 議事堂은 修羅場이 되고 말았을것입니다

그나 이문제는 이렇게 많이 發言을 안하다 라도 鞭하게 아는것이 아답니까? 그러므로 議事進行을 무엇할 사실는지 모르지만 司會者로서는 지금 贊成 反對 구분식면 더 發言시키고 그러면 贊成 反對 구분입시다 이렇게 하고 表決로 作定하면 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웃음)

○成泰慶議員 우리가 다 아는바와 같이 우리 內閣이 構成된 오늘까지 이 國務委員들은 議事堂에 불려가지고 各種方向으로 여러가지 質問과 討論을 하것은 別個문제로 하더라도 이번이 張曙根의 逃避事件을 綠田로 해가지

고 그 直接責任者인 內務長官이 辭任한 뒤  
 를 이어서 이 內務長官의 辭任만 가지고는  
 되지않을일이다 罷가지고 國務總理의 出席을  
 要求하는것같이 本議員은알고 있는것입니다  
 그러나 이 內閣責任制의 運轉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 內閣에 대해서 責任을 묻는 態度  
 는 좋지만 또 方便으로 우리 國會로서 이  
 內閣에 대하여 가지고서 責任을 묻는 態度自體  
 에 慎重을 期해야될을 압니다  
 日淺한 이 內閣이 오늘날까지 迂餘曲折을 겪  
 으면서 그대도 本議員이 생각하기는 李政權下  
 보다는 그대도 責任을 질수있는 그런 態度와  
 그런 誠意를 表示해 오고있는것을 우리가 다  
 認定해야 될을 아는것입니다  
 이 內閣이 構成된 뒤에 內務長官이 두번째  
 갈렸읍니다  
 먼저번에 國會의 亂動事件의 責任을 지고 內  
 務長官이 물러갔고 이번에는 國家의 元兇인  
 張曠根의 逃避事件에 있어가지고 또 長官이  
 물러나갔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에서 또 하나 묻고져  
 하는것은 어찌서 法務長官은 물러가지 않느냐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하시는것같이 本議  
 員이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문제에  
 있어서 果然 法務長官이 責任을 질수있는 문  
 제나 없는문제나 하는것은 本議員이 말씀드리  
 지 않을수 없는것입니다  
 먼저번에 우리가 大法院長을 여기에 물러가지  
 고 그 經緯를 물을적에 勿論 司法權의 獨立  
 을 우리는 尊重한다고 하지만 國家元兇인 張

曠根 이를 果然 保釋 할수있는 處地에서 果  
 然 保釋을 했거나 안 했거나 물었던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司法權의 獨立을 우리가 侵害할수 없  
 다 하더라도 그 保釋이 自體가 옳으나 그  
 르나 하는것은 우리가 마저볼 必要가 있던것  
 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다 아는 바와같  
 이 保釋에 있어가지고는 첫째 被疑者를 保釋  
 하지 않을것같은 被疑者가 그 무술을 救할  
 수없는 그러한 境遇에 保釋 해야 되는것이  
 도 그 事件自體가 輕微해야 되는것이요 또  
 逃走할 憂慮가 없어야 되는것입니다  
 그러므로 國家의 元兇인 張曠根이 逃走할  
 憂慮가 充分히 있다고 하는 關係로해서 法務  
 部長下에 있는 檢察에서는 이 保釋을 끝까지  
 反對 했었던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單 三百萬圓이라는 保釋金  
 을 받아 가지고 法院에서 保釋했다하는 事實  
 은 아무리 司法權이 不可侵이라 하더라도 이  
 것은 適當한 處事가 아닌것입니다  
 그러면 保釋된 뒤에 法務部에서는 어떻게 했  
 으나 法務部에서는 保釋한 뒤에 當該 檢事를  
 派遣해가지고 그 保釋된 張曠根의 監視에  
 對해가지고 嚴重한 指示를 내렸었던것입니다  
 만이나나 우리가 전자에 新聞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周知하는 바와같이 病保釋을 받은 張  
 曠根이 糖尿病이 이미 나았으니 이것은 保  
 釋을 取消해도 좋습니다 하는것을 「메디칼센  
 타」에서 法院에 要求했다고 하는것입니다 그  
 러나 法院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保

釋을 取消하지않고 다시 大學病院에 이것을  
 移管시켜서 繼續 保釋을 許可했다고 하는 事  
 實自體 이것이 果然 適當한 處事이였느냐  
 아니었느냐 萬一 우리가 이러한 前提條件을  
 全然 度外視하고 넘어놓고 어떠한 結果이든  
 에 內閣은 그 結果에 對해서 責任을 질다고  
 그렇게 廣範圍한 責任論을 우리가 追求한다고  
 할것같은면... 그 理論을 展開한다고 할것같은  
 면 누가 이 責任을 맡고 일할 사람이 있겠  
 습니까?  
 여러분 最近에 新聞에 나왔지만 張曠根이 無  
 窮花號를 타고 悠悠히 逃走했다고 합니다 그  
 러면 汽車를 管理하는 交通長官도 責任을 지  
 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限界를 자꾸 廣範圍  
 하게 되친다고 할것같은면 일은 못하는것입니  
 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內閣責任制下에  
 있어가지고 國務總理 以下 各 關係가 個別的  
 이나 或은 全體的이나 責任을 질다고 하는것  
 은 當然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問題를 追求할적에 責任 限界를 無限定  
 되뜨려 가지고 여기까지 責任을 止라하는 이  
 러한 追求하는 態度라는것은 우리 政治家으로  
 서 삼가할 必要가 있는것이 아닐가 하는  
 이런 見解를 本議員은 가지고 있는것입니  
 다  
 진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든지 이 不足하고 混亂한 이러한 環境에 있어  
 가지고 어느 限界까지는 이 內閣을 育成하고  
 維持해서 일을 하도록 하는 方向으로 우

리가 이끄는 것이 옳을 것이냐 그렇지 않고 이제  
 이며 國務總理가 新聞紙上을 通해가지고 張曠  
 根이를 逃避시키는데 對해가지고 道義의인 責任  
 이 있다고 하는 것을 : 國民앞에 謝過를 表示  
 하고 있는 오늘날 當該 內務長官이 全責任을 지  
 고 물러간 오늘날에 있어가지고 다시 이 責任  
 의 範圍를 擴大해서 몇個 長官의 辭表을 要  
 求하는 態度는 本議員으로서는 贊成할 수 없는  
 態度가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써 國務總理 出席  
 要求에 對해서 反對發言 몇마디를 말씀드리고  
 물러가는 것입니다

○議長(郭尙勳) 贊成에 許 恭議員 나와서 말  
 씁하시요

○許 恭議員 지금 이 國務總理出席動議에 對  
 한 問題는 이것은 어느 所屬政黨이 다르다고  
 해서 感情的으로 나를 問題가 아니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冷靜히 생각을 해가지고서 우리나라  
 라에 獨裁政治가 물러나가고 責任政治가 始作  
 되는 이 마당에 있어가지고 이 問題는 感情  
 과 氣分을 가지고 다루어서는 안될 問題라고  
 하는 것을 먼저 自身도 알고 그런 心境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 드립니다  
 우리는 過去の 스라린 經驗에 비추어서 어느  
 한 사람이 : 어느 한 長官이 그 政治에 대한  
 責任을 지지않고 彼此에 責任을 逃避하고 窮  
 極에 가서는 大統領에게 責任을 물어야 될터  
 인데 도저히 大統領하고 따질 수 없는 立場에 있  
 어서 國民은 責任지지 않는 政治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政治는 腐敗했고 全國民은  
 責任政治를 渴望해가지고서 이번에 獨裁政治가

물러갔다고 하는 事實은 우리 國民들이 아니라  
 은 세계가 다 아는 事實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우리나라에 糧穀이 없어서  
 國民이 굶어죽게 되었을적에 農林部에서 糧穀  
 을 導入해서 釜山埠頭에 있다고 할 경우 에 交  
 通部에서 이 糧穀을 輸送하지 않아서 國民이  
 飢餓狀態에 빠졌을적에 國會에서 交通部長官을  
 불러 따질 것 같으면 나는 運送을 하고 싶지 마는  
 農工部에서 石炭을 주지 않으니까 그렇습니까  
 農林長官은 交通部에서 運送을 안해줍니다  
 農工部長官을 다져서 부를 것 같으면 財務部에서  
 돈을 안추니까 石炭을 쥘 수 있소 : 責任질사람  
 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러한 責任을 逃避하는 동안에 勸誘를 먹고  
 죽어자가는 것은 우리 國民뿐이었음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러한 全國民이 塗炭에 빠져  
 고 진저리나는 그 無責任한 政治를 물리치고  
 우리는 이제부터 責任있는 政治를 實施해가지  
 고서 그 塗炭에서 國民을 진지고 우리가 보  
 랐있는 나라를 세워서 새살림을 마련해야 되  
 겠다고 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새로 創建된 이  
 內閣責任制의 內閣을 政派가 다르다고 해서 無  
 條件 感情을 가지고 있고 험고 듣기爲해서 일어난  
 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常識以外的 일일시다  
 도저히 : 이것이 新民黨에서 이 提案이 되었다  
 고해서 이 與黨이신 過去에 나하고 같이 苦  
 生하시던 이 여러同志先輩께서도 이것을 誤解  
 하셔서 안될 줄 알아요 그러면 이러한 張曠  
 根逃避事件과 같은 重大한 問題가 나올때에 內  
 閣責任制 : 責任政治를 하겠다고 政權을 말은

現政府는 여기에 대한 責任을 똑똑히 國民앞  
 에 들어내놓고 그 責任을 지고 責任을 안질 것  
 은 안지는 그런 分明한 傳統을 세우고 政治  
 를 해야 할 것은 多言을 不要하는 바입니다  
 目前에 曹法務長官이 여기에 나오셔서 말씀하  
 시기를 이 問題는 內務部에서만 질 責任이 아  
 니요 法務部에서만 질 責任이 아니요 심지어 法  
 院에까지 責任이 있다 다 共同的으로 責任이  
 있다는 말씀을 했습니까

그러면 그 責任이 法務部の 責任은 몇 퍼센트  
 가 되고 內務部の 責任만이 그렇게 크길래 內  
 務部長官내놓고 治安局長내놓고 警察局長내놓아  
 가면서 法務部長官은 責任이 있다고 했는데 責  
 任을 안지니 말이지요 國民들이 궁금할 것은 事  
 實이 아닙니까?

그러면 責任을 지고 責任있는 現內閣에서 閣  
 僚들이 나와서 共同으로 責任이 있다고 하는  
 말을 해놓고 그러면 그 責任의 「퍼센테이지」가  
 어떻게 되었길래 內務部에서는 이렇게 지독한  
 責任을 지고 法務部長官은 그대로 앉아서 가만  
 히 있어야 되느냐 그말이예요?  
 이것은 우리 新民黨에서 이런 얘기를 안한다하  
 더라도 우리는 責任政治를 하기爲해서 政權을  
 맡았다면 現政府에서 自進해서 : 與黨에서 自  
 進해서 法務部の 責任은 一割밖에 안되고 九  
 割의 責任이 內務부에 있으니까 內務部長官만  
 내는다는 : 하는 것이라도 여러분이 밝혀서 이  
 問題에 대한 疑惑을 國民이 갖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事理로 따져서 그렇지않아요?

그러면 責任은 共同으로 있다고 해놓았고 內務部에서는 와루루하고 여럿이 나가고 法務部

는 責任을 안진다고 할것같은데 法務部長官은 責任이 똑같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責任의 「퍼센테이지」가 어떻게 되어있느냐 말

이예요

今後에 이런問題가 있을적에 國民이 여기에 대

한 納得을 하고 誤解를 하지않고 政權을 맡

아가질 政治를 하는 政府에 대해서도 誤解가 없

기爲해서 마땅히 이번 機會에 나와가지고서

그 責任의 差異가 있다고 할것같은데 그 責任의 「퍼센테이지」를 밝혀야 될것이고 責任이 같

다고 할것같은데 같이 물러가야 할것은 變換

事實이 아니겠음니까? 그러나 우리는 過去의

大統領 責任制가 나쁘다고 하는것을 알면서 만

든것은 아닙니다

運營을 잘못하고 傳統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을

지 못한 傳統이 繼續이 되고 이와같이 運營이

잘못되었기 繼續이 되려는 우리 國民의 살수

가 없다고해서 大統領 責任制를 反對할것에요

그러면 새로 內閣 責任制 責任政治가 始作된 의

마당에 있어서 이렇게 責任을 밝히지않고 어디

까지나 回避하고 模糊한 運營을해서 國民들이

疑心하고 도치림 마르면 內閣 責任制 傳統이 잘

못된다고 할것같은데 어느때에 國民들이 大統

領 責任制보다도 內閣 責任制는 더 고약하다고 해

가지고 다시 大統領 責任制를 要求하고 이 大

統領 責任制가 原因이 되어가지고 다시 이나라

에 獨裁政治가 오지말라는 保障을 누가 하겠

음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草創期에 있어서 內閣 責任制의 傳統을 통용하게 세우고 이 責任을

하지않고 明明白白하게 도는 政治를 해가는

가운데에 熱烈한 國民의 支持를 얻어서 이나

라의 政治를 發展시켜야 될것이 아닙니까 그

런데 지금 成泰慶議員의 말중하기를 이것은 法

院의 處事가 잘못되었으니까 法務部에서는 責

任을 지지않어도 좋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

렇다고 할것같은데 刑務所에있는 罪囚가 아침

에 나와야될 사람이 事務的인 錯誤라든지 刑

務所의 幹部가 잘못해가지고 그이튿날에 내보

냈다고 할것같은데 그러면 그罪囚가 手續節次

를 밝히지않고 監獄門을 나온다 하더라도 看守

는 그대로 내보내야 될것입니까 責任이없다

고: 刑務所는 相關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나

간다고 形務所 門지키는 立哨 서는 사람은 그

대로 놔두고 責任이 없다고 그말이예요? 法

務部에서 잘못했으니까: 아니 法院에서 잘못

했으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責任이 法院에 있

는것이요 法務部는 相關이 없다고 할것같은데

그와 마찬가지로 아니예요? 事務的으로 오늘

나갈것을 來日 내보내는 罪囚가 있는경우에 오

늘 지덕때라고 逃亡한다 할것같은데 이 刑

務所 門지키는 사람은 이것을 事務的으로 할

못했다고 해서 내가 責任이 없다고 해서 逃

亡보내도 상관이 없습니까 이것은 얘기가 안

됩니다

그러니 左右間에 일을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檢

察의 責任을 지야될 責任이 따로 있는것이요

內務部가 지야될 責任이 있는것이예요 다른部

處에서 일을 잘하고 잘못한시간에 自己가 지

야될 責任을 完遂하지 못했을때에 그 責任을

지야 되는것이 原則이요 하물며 責任政治를 부

르짖고 이 責任政治制度의 運營과 이 傳統이

어떻게 되어나가고 있는나고 注視하고 있는 이

안타가운 國民의 心情을 생각해서라도 이 마

당에 있어서는 秋毫도 責任感을 疎忽히 하지

않고 어디까지나 自己의 責任을 느끼는 그 責

任에 따라서 自己는 良心껏 行動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意味에 있어서 나는 新民黨에서

이런 문제를 提案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今

後에 이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政府가 疑心

을 받고 與黨이 疑心을 받아서는 안될터니까

이때에 責任을 밝히고 모든것을 밝혀야겠다고

自進해서 責任은 共同으로 지는데 法務部는 「퍼

센트」밖에 責任이 없고 九十九 「퍼센

트」가 內務部에 있으니 內務部長官을 내보냈

다는 얘기도 해야 할것이 아니예요? 그러

면 現內閣에 있어서는 그 責任의 대개 長官

에도 勿論 없던것이 아니지만 終局의 責任이

國務總理에게 있다고 할것같은데 이때에 國務

總理가 나오셔서 그事件에 대한 未安한 말씀도

國民에게 하는것이 道義일것이요 따라서 이인인

事문제에 있어서 責任은 있다고 하되 責任의

限界가 이와같이 差等이 있다 區分이 있기때문에

이런 處事를 했다고해서 國民이 納得할수 있는 諒解를 시켜야 될것이 아니냐 그말이예요 아 무리 바쁘시다 고해서 덮어놓고 國務總理를 나 오시라고 할것같은면 與黨에서 反對하는것이 能 事가 아닐것입니다

與黨이 오래 與黨노릇을 하고 올바른 傳統을 세우려고 한다면 이 機會에 與黨에서도 많이 贊同하시가지고 國民들이 張總理를 疑心하지않 고 民主黨을 疑心하지 않고 아! 果然 그런 點이 있기때문에 그렇게 되었구나하는 納得을 시켜야 될것이 아니냐 그말이예요 이런 意味 에 있어서 이런 張總理出席動議에 있어서는 與 黨에서도 이런 事理 이런 傳統을 세우기 위해서 라도 아무쪼록 贊同을 하시가지고 이 무제는 國民앞에 밝히야 올을중로 저는 생각합니다 ○議長(郭尙勳) 그러면 約束대로 表決에 들어 가겠습니다

成員이 出席이 되어있습니다 지금 表決에 들어 가겠습니다 尹濟述議員이 提案한 國務總理 國會出席要請의 件이올시다 (舉手表決) 表決結果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在席 百六十九人 可에 五十七人 否에 三十三 人으로 過半數未達이므로 이것은 一次表決에未 決입니다 一次表決에 未決이므로 또 여기에대한 發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데 여기에 發言要請이분이 贊 成에 劉沃祐 申仁雨 두분이 있고 또 反對는 褒聖基 洪正杓 두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發言에 對해서 本席만 發言을 드 리고... (음) 다해요하는이 있음) 두분씩 마저해요! 그러면 劉沃祐議員 나와서 말씀하세요

○劉沃祐議員 國務總理出席에대한 關係를가지고 우리가 國會에서 이렇게 兩便으로 잡아서 贊 成을하고 反對로하고 하는것을 이렇게 本席에 過去 우리가 自由黨時代에 自由黨이:長官을 부러내자고 그러며는 理由가 如何間에 그저 否 決해서 안나오드롭하고 野黨은 수이 도자란가 지고 贊成시키지 무하던 이것이 지금 다시 우 리가 聯想이 되는것입니다 이번이 張學根이 逃避事件에대해서는 그責任 所在가 어느長官이 重하다 또는 輕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따진다것보다는 적어도 四月革 命에의해서 樹立된 現政府는 마땅히 國民한테 대해서 그繩繯를 밝히고 未安하다는 얘기를 해 야될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張學根이라는 사람이 어느程度的 位置에 있던 사람인지: 지금 選舉元兇들이 지금 刑務所에 들어가있지 만 그중에서도 가장 首級이라고 우리가 指摘 할수있는 사람이예요 四格五入 改憲때라든지 또는 一四波動當時 또는 三一五選舉當時의 張 學根의가 하면 行動은 우리가 잘 알고있습니 다 어느程度的의 우리 國民의 感情의 張學根의 에 대해서 甚하다하는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 십게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제발로 떨어져서 外國 으로 유유히 逃亡가게 이렇게 되거나 이말이 예요 그러면 적어도 四月革命을 完遂해가지고

國民感情에 符合되도록 政治를 해야 된다는 誠 意가 있는 政府라고 그러며는 마땅히 國務總 理가 國民을 代表한 國會에 나가가지고 그經 緯를 밝히고 그래가지고 國民에게 諒解를 求 하는 程度의 誠意는 가려야될것입니다 그런데도 不拘하고 이것을 國會에서 野黨이 이 렇게 決議를 通해가지고 나오가지고 해주십사 함에도 不拘하고 이것을 與黨의 힘으로써 與 黨의 意思로써 이것을 否決시키가지고서 안나 오고 그대로 默殺하고 말아버리라고 하는 이 런 前例를 또다시 우리가 만든다고하면 우리 가 도처럼 內閣責任制로 改憲을 해가지고 政 治를 하자는 意義가 하나도 없을것입니다 또 그뿐만아니라 法務部長官의 責任이 있느냐 없느냐하는 얘기가 얘기는 우리가 重大視를 하 지않습니다 要는 政府의 四月革命을 完遂하는 데있어서 그責任이 그誠意가 어느程度 있느냐 없느냐 하는것이 重大한 問題인것입니다 나는 생각하기를 法務部長官에게 責任이 있나 없나 하는것 程度는 問題가 안된다고 생각해 요 내 個人으로서 그程度를 따진다고 그러다 고하면 法務部長官이 뭐라고 얘기해도 그責任 을 免할수가 없을것입니다 왜그러냐하면 여러 분 아시다시피 元兇들을 잡았다가 가두어놓고 있는 刑務所를 지금 監禁하고있는 長官은 法 務部長官입니다 그 刑務所 監禁을 裁判所가 잘 못해하는 얘기를 與黨에서 나온 분들이 합니다마는 保釋을 裁判所가 하도록 이렇게 判斷을 하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 아마 우 리가 생각하기는 刑務所에 있는 소위 醫務

課長이라고 할까 醫務官이라고 할까 이 사람  
들이 어떠한 診斷을 내리기前에는 그런 判斷  
을 法院이 할수 없을것입니다 그런데도 不拘하  
고 張曠根이가 日本에 가서 日本醫師들이 診  
斷을 해가지고는 入院할 必要조차 없다 이런  
記事가 우리에게 傳해오고 있다 그것의예요  
그러면 그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診斷  
을 했는가 모르지만 刑務所의 醫務官이 그리  
한 診斷을 하고 法官의 判斷을 그르치게 하  
는 責任도 法務長官이 저야 될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지금 檢察廳에서 自己네는 한  
일흔 다 했다는 얘기를 하고있지마는 都大體  
말이 안되는 얘기에요 張曠根이라는 사람의  
어떤 사람인데 그때 그사람 한테대해서 警察  
장이다가 全部 責任轉嫁를 하고 警察장이 責  
任이 있고 警察장이 責任을 지고 內務部長官  
이 責任을 질수있는 얘기가 다 하는 얘기를 法務  
部長官 임으로서 또는 檢察總長 임으로서 나  
온다는 自體가 안되는 얘기만 말이에요  
法務長官이 아니고 檢察總長이 아니라라도 政  
府에 職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며는  
政府의 一員으로서 非但 無任所長官의 位에 있  
는 사람으로서도 그런 얘기는 못 할것입니다  
當然히 이 事件에 對해서 國民한테 未安하다  
우리들의 苦 痛이나 이 革命課業을 우리가  
完遂하는데 있어서 責任을 다부했다는 程度의  
말이 나오고 國民의 容恕를 받아야지 當當히  
할 일이라고 自己 責任은 다 했으니까 나는  
責任은 없다는 式으로 이렇게 하다고 하려는  
우리가 野黨生活을 할 적에 過去의 自由黨을

向해서 달마나 얘기를 했어요 그때 世上의  
바라고 張曠根이 바르다고 그대가 지고의 自由  
黨의 하한 式으로 그렇게 억지로 미루고 나  
가려고하는 式으로 이 政治를 가지고서 果然  
우리가가 잘 되겠이나 그렇지예요 나는 지  
금 비록 野黨에 籍을 두고 있지만 내가 이  
번 豫算을 通해서 豫算審議를 하는데 있어서  
또는 各地에 가지 豫算을 하는데 있어서도  
그가 政府가 樹立 되가지고 이 混亂中에  
지금 時日이 없가지고서 自己네 政策을 完  
수히 지금 말아내지 못하고있는 이 此際에  
있어서 政府보고 잘 못 했다지만 우리가 불  
수가 있지않느냐 國民의 勇力을 해야 :  
이런 얘기를 하고있으니까 또 豫算審議하는데  
있어있고 非但 野黨의 少科委員長이라는 자  
를 차기하고 있지만 與黨의 以上으로 시  
豫算은 우리가 成立시켜놓고 政府가 차번 일  
하는것을 보다가 지고 우리가 判斷을 내려야  
쓰겠다 그 態度를 내가 堅持하 있다 말이에  
요 그리고에도 不拘하고 여러분에서 國務總理를  
나오면 그런다고 해서 國務總理 나오라는 사  
람이 너무甚한 얘기가 精神을 차린수가 있  
느냐 하는 程度로 시킨다고 그러며는 이것은  
過去의 自由黨時代와 何等 差異가 없다고 하  
는 非難을 여러분이 말하것입니다 그렇다고  
불적에 킁이도 事件에 對해서 지금 아까 우  
리가 表決結果를 본다고 그러며는 不過五  
十七票밖에 안 나왔으니다마는 시건은 우리  
가 表決한것도 없는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하  
니다 張 勉 國務總理가 주더 政治的인 그러

한 手腕이든저 力量이 있다고 그러다고 하  
면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기 前에 自進해서  
나오가지고서 이 事件에 對해서 國民에게 謝  
過를 하고 國民에게 容恕를 바라는 이러한  
態度로 나와야 될것입니다 더구나 지금 우리  
政治가 지금 混亂中에 있습니다 이것은 熱誠  
黨員을 갖다가 就職을 시켜가지고 代價하고  
組織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 混亂을 막아낼수  
없는 이런 處地에 있습니다 어니가지고 民心  
을 收拾해가지고 民心이 安定이 되어야 이  
混亂이 安定이 될것입니다  
民心이 收拾이 안된 그러한 政治가 어떻게  
安定이 될것이나 그것의예요 그렇게 된다고 할  
적에 民心이 다른 方向으로 反對 方向으로  
이렇게 되므로 글고 나가려고하는 이런 식으  
로 해가지고 海事件에 있어서 國民의 바  
라는 國民의 뜻하고는 背馳되는 그러한 方向으  
로 政治를 하다가는 앞으로는 우리가 重大한  
事態를 빚어내고 말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좀더 이 張 勉 內閣도 앞으로 精神이 가려가  
지고 이 民心을 收拾하고 民心에 迎合되는  
그러한 方向으로 政治를 해야만이 우리 政治  
가 安定이 되고 우리가 좀더 一步 前進할수가  
있을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여서 이런 機會에  
忠告의 말들을 드리는것입니다  
平素에 시사라의 過激한 言動을 하고 過激한  
이러한 시야기를 해서 마치 攻擊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시야기를 하는것같은 이러한  
感을 여러분이 가지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이 此際에 우리가 이 混亂을 收拾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政治를 安定시키어서 우리가 建設을 向해서 一步一步前進해가지고 우리가 살수있는 길을 찾아야겠다는 이러한 心情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方向하고 지금 張勉內閣이 생각하고 나가는 方向하고는 전혀 距離가 멀으므로 因해서 이렇게 나가다가는 이것 困難하지 않느냐 이러한 衷情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與黨에 계신 여러분들도 저희들의 苦衷을 理解하시고 우리는 이 張勉總理가 이 자리에서 나와서 責任所在의 如何間에 國民에게 自己의 마음속에 있는것을 이야기할하고 容赦를 바라는 그런 方向으로 우리 國會가 運營이 되기를 간절히 付託하면서 제 말씀을 끝마치겠습니다.

○議長(郭尙勳) 反對發言에 裴聖基議員 나와서 말씀하세요

○裴聖基議員 나라를 사랑하는것은 與黨이나 野黨이나 同一한 問題이고 또 野黨에서 말씀하는 여러분의 意義와 與黨에서 말씀하는 意義가 다 各已一理가 있다고 보는데 다만 自由黨과 저의 같은 方法이라고 하는것은 本議員의 생각으로서는 상당한 距離가 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理由로서는 지금 內閣이된뒤에 자주 人事가 變動이되고 官心이收拾이 못되어서 수반되는 民心도 混亂을 惹起하고있는 이 마당에 자주 長官 내지 局長級들의 移動이 있으므로해서 지금 官心收拾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애

기해서 官의 體系가 서야만이 內閣의 命令이 樹立되는것이요 거기에대한 民心이 安定되는것이라고 보는 이마당에 內務長官도 자주 變動이 있어서 제가들은 情報을 國民들이 마구 杞憂를 사고있다고 하는것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張勉博士께서는 이번이 張喉根逃避事件에 당신 自身이 스스로 먼저 責任을 지고 國民에게 態度를 表明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윤제가 한번 責任을 지서 內務長官을 更迭하고局長까지 更迭한 이마당에 있어서 國務總理를國會에 불러 내야 되겠다고 하는것은 앞으로 도 이러한 事件을 契機로해서 責任을 입고 國民앞에 態度를 完全히 보였음에도 不拘하고 國務總理를 불러다가 이런얘기를 하여야 되겠다고 하는 例를 자주 남기게 되면 물론 內閣責任制의 本然에 意義에 있어서 國家 全般에 限해서 事件에 事件이 發生될적에는 적으나 크나간에 國務總理가 責任을 입고 가는 문제이기때문에 事實 實情을 들어서 國務總理에 責任을 追窮할수있는 문제는 與黨이나 野黨이나 다 同一한 感情일것이고 同一한 일일것입니다. 이번이 있어서도 마찬가지 들은 情報은 國民은 亦是 張博士는 責任을 느끼고 度量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거기에다가 法務部長官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는대 아까 劉沃祐議員 말씀한 醫務官의 診斷을 받아서 나온 그사람이 日本에 逃亡을 첫는것은 이것은 醫務官으로부터서 腐敗된 樣相에서 찾아온 結果가 아닌가 一理가 있는 애라고도 생각됩니다.

그러나 病이라는 것은 오늘은 내일이요 來日은 남의 날이라는 格으로 하루밤사이애 사람이 죽는수도 있기때문에 張喉根의 診斷을 내는 그當時에는 또 危重한 病症이 發生되어서 그러한 診斷이 나왔다는것을 是認도 할수 있는 問題고 全的으로 否定할수도 없는 問題라고 봅니다.

그렇기에 本議員의 생각은 이 程度의 責任을 물어 責任을 느끼고 張總理가 이미 方今 말씀한바와같은 態度를 決斷해서 國民앞에 謝過乃至 表明해서 辟여드린 以上 자주 이런 問題를 가지고 불러들여내서 質疑을 하게 되는 그러한 實情이 자주 있다고 보려는 內閣의 草創期의 混亂을 協助하는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問題의 深刻한 支障을 가져올 念慮가 있기때문에 당할하나마 反對發言을 드리고 내려잡니다.

○議長(郭尙勳) 表決하면 어떻습니까?

(表決해요)하는이 있음)

내 表決하시지요?

(안돼요)하는이 있음)

發言 더 하시겠어요?

(表決해요)하는이 있음)

해봤자 마찬가지입니다. 늘 그렇고... 表決하시지요

그러면 한분씩만 더 하세요

申仁雨氏 나와서 말씀하세요 第一 끝입니다 申仁雨氏 申仁雨議員!

바꾸지 않아요  
그러면 柳珍山議員 나오세요 諒解하신다면 바  
꾸세요

○柳珍山議員 本議員은 여러분이 或 생각하지  
기불이 問題에 關係서 立錫虎內務部長官이 更迭  
이 되었고 또 治安局長 서울市警局長까지도 更迭  
이 되어서 張 勉總理로는 應分의 責任을 다  
했음에도 不拘하고 또 曹在干法務나 檢察總長  
을 것드려서 責任을 물어야 된다고 하는 이러한  
우리들의 底意樣으로 解釋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發言도 있었읍니다마는 그보다도 第二共和  
國이 始作된 오늘에 있어가지고 內閣責任制의  
憲政을 運營하는데 있어가지고 이 사람의 생각  
으로는 크게 念慮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이  
러한 느낌을 가지기 때문에 한말씀을 남겨둘려  
고 하는 것이옵시다  
지나간 일을 回顧할때에 十二年 前 制憲國會  
當時 大統領 李承晚氏는 國會에서 必要하다면  
자주 나왔었읍니다  
議員들의 質問에 對해서 自己 誠心껏 自己의  
所信을 披瀝하고 또 國會에 對해서 諒解를  
求하고 이러한 誠實性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러던 그가 하달가고 一年가고 이러한 途中  
에 벌써 그는 國會를 가떠히 보고 國會에서  
나와달라고하는 要請에 應하지를 않고 마침내  
國會에서 이 분의 向해 가는 方向이 獨裁를  
向해 가는것이 아니냐 크게 憂慮됨으로 內閣  
責任制 運動이 改憲運動이 始作되었읍니다  
마는 그 運動은 여러분이 아시다 시키 온갖  
不法과 不正한 方法으로 이것이 挫折되고 말

었던 것입니다  
그후에 그는 選舉때 遊說 行脚을 通해 가지  
고 國民에게 呼訴하기를 內閣責任制 改憲이라  
고 하는 者는 民族 叛逆者와 그물것이 없다  
그런 사람에게 投票해서는 안된다고 이렇게  
외치고 다녔던 것입니다

이래 가지고 權力에 阿附하기 좋아하는 그 者  
들이 當選이 많이 되어가지고 와서 마침내  
李承晚政權이 그때에는 自由黨이 없었읍니다  
마는 所謂 安定 勢力을 構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後로 國會에서 李承晚氏 얼굴을 한번 볼  
려면 까마득 했어요 通하지를 않아! 그때가  
지고 六·二五事變을 當해가지고 釜山避難 時  
節에 그는 우리가 다 아는 그런 行狀을 通  
해가지고 一路 獨裁의 方向으로 邁進했던 것  
입니다 그 뒤로 自由黨이 되어가지고 三代에  
에 그 不法 物議 傲慢 惡辣한 方法 手段으  
로서 소위 三分之二線에 가까운 勢力을 構築  
한 뒤로는 行政 首班인 그가 國會에서 아무  
리 出席을 要求하고 그 政策이라고 할까 그  
行政에 對해가지고 알아보아야 할 일이 있다  
고 우리가 외쳤지만 自由黨이 數많은 소위 舉  
手機로 말미암아서 언제나 事件件 行政責任  
者인 그는 國會에 나올것을 가로 막고 말았  
던 것입니다 이 事實은 마침내는 우리가 三  
·一五라고 하는것을 겪었고 四月革命이라고하  
는 이런 피값을 支拂하지 않을수 없게 되었  
던 것입니다 本議員은 앞으로 邦家의 將來를  
위해서 여러가지 일에 對해서 구슬뎌 생각을

禁하지 않을수 없읍니다 이 거룩한 피값을  
支拂해서 建立된 이 第二共和國이 과연 올바  
른 責任制度下에서 우리가 올바르게 運營되어  
나가고 있는가 李承晚時節에 長官하나 무 배  
는것은 그야말로 파리 모가지 하나 빼는것과  
다름없이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長官이랍  
시고 車를 타고 國務會議에 出席하는 途中에  
그 사람 모가지가 도망갔다 말이에요 또 自  
己가 長官되리라고는 생각지않았던 사람이 뜻  
밖에 旅行中에 自己가 任命되었다고하는 일

을 알게 되었다는것 이와같이 當時의 國務委  
員 소위 長官이라는 사람들의 價値는 李承晚  
氏의 봉창 속에 든 하개의 私有物化 했어요  
이 思考方式이 마침내는 우리 國民을 이끌고  
어느方向으로 疾走할것인가 우리는 이것을 念  
慮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國務總理 張 勉博士는 이렇게 되지도않  
기를 바라는 이 心情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마  
는 과거 그 時節의 李大統領 李承晚氏가 하  
던 그런 時節을 담으려고 하는것이 아닌가?  
率直한 心情으로 말씀해서 나는 이 자리에서  
萬一 張 勉總理에게 잘못이 있다면 그 잘못  
을 追窮하는데 내 마음이 아픈사람이에요 그  
러나 여러분 國會議員인 同時에 國務總理인  
그가 어찌 國會에 나오기를 이렇게 싫어한것  
이 무엇이 있느냐 말이에요 더군다나 內閣  
責任制의 責任을 지는 방식이라는 것은 언  
제나 一連托生即 即 連帶責任的인 位置에  
있는 것이예요 그러나 이것이 政府의 重要

한 政策的인 過誤나 施策으로부터 오는 意識  
 的인 犯過가 아닐 경우 이것을 一連托生的인  
 方向에서 責任을 짓는다 배가지고 總의責任을  
 要求한다는지 하는것은 이것은 過한것이다 그  
 령기때문에 該當關係者인 長官을 更迭할수가  
 있어 하지만 그것은 國務總理 自身이 가지고  
 있는 그 責任의 表現方法에 지나지 못하는것  
 이예요 責任은 어디까지든지 國務總理 自身이  
 져야되고 自身에게 있는것이예요 그러면 어떤  
 의 경우 張 勉總理와 曹法務는 革命立法이라  
 는 改憲手續節次를 밟을 必要없이 現行法으로  
 도 能히 革命課業을 遂行할수가 있다는것을  
 天下에 公表할 려어요 이래놓고 그 結果 그  
 無誠意인 態度는 마침내 世界人類 民主歷史  
 上에 없는 國會議事堂을 侵入當하고 占領當한다  
 고 하는 이러한 事實을 恥辱을 우리가  
 겪고있는것이예요 이러한 張 勉總理가 張炳根한  
 사람에게 이번엔 처음 發生된 事態라며는 또  
 우리가 생각해볼 餘地가 있을것입니다 辛道煥  
 이가 달아났다 趙寅九가 行方不明이 되었다  
 世上에서 가지각색 物議를 일으키고있고 疑惑  
 이 重疊되어가지고 있다는 事實을 아마 그분  
 들도 귀가 있으면 들었을것입니다 그럼에도  
 不柯하고 이번에는 張炳根이自己 愛妻와  
 또 秘書하고 이와같이 帶同해가지고 유유자적  
 해가지고 갔다 말이에요 이것은 國家的인 부  
 끄러움이올시다 어떻게된 事態이나 이點에있어  
 서 曹法務는 말하기를 法院에도 責任이 있고  
 法務部에도 責任이 있고 警察에도 責任이 있  
 다 三者 共同責任이 있다 이런 發言을 公公

然하게 있어 : 그것을에고 不拘하고 이번  
 이 問題에 對해서 道義的責任을 지켰다 그  
 道義的責任을 지는 方法으로서 玄錫虎라고  
 하는 不過入關한지 며칠이 아니되는 그사  
 람을 辱을 살았어 나는 玄錫虎議員에 對한 同  
 情을 하고 두눈을 하가爲해서 말슴드리는것이  
 아니예요 그다음에는 治女局長의 辱을 자르고  
 市督局長을 罷免시켰다 그 後任에는 自己와  
 가 親近한 사람으로 하여금 市督局長에 앉  
 게하고 또 選舉때에 많은 手苦를 들었다고하  
 警察官을 治女局長에 앉혀놓고 이런식으로 하  
 고있다 그러면 지금 우리國民이 다 걱정하  
 는것은 隨便으로 過去의 李承晚時節의 惡質  
 的인 走狗輩도 못하 하던 그 警察官 말의  
 廟前앞으로서 우리 警察官 士氣를 早速한 時  
 日內에 挽回하여야만 되겠다고 우리가 다 絶  
 叫하고있다 말이에요 警察官 이와같이 首腦部  
 목을 찢아 잘라 그림에노 不拘하고 警察에  
 對해서는 까딱도 없다 世上에서는 무엇이라  
 고 말하고있습니까 요사이 天下는 檢事의天  
 下라 그러고 있습니다 公訴維持의 責任이 檢  
 事에게 있다 檢事에게 그 責任이 있다면 그  
 被告를 잘 管理해야만 될 保管하여야할 責務  
 도 또한 檢察에게 있을것입니다 檢察官 萬一  
 豫防警察이라고해서 指揮權이 없다고 이런 詭  
 辯을 論하는지도 모르지만 萬一 그만큼 誠意  
 가 있었다면 應當 警察에 對해가지고 이 保釋  
 令에 對해서는 監視令 徹底히 해다오하는 무  
 슌 要請이 있었어야 될것이고 있어야 할것이  
 라 그것 없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가가지만

말씀드리고 國務總理는 어쨌든 所謂 元兇의  
 元兇이라는 張炳根이 그렇게 유유자적 이나  
 라를 從으로 貫通者 배가지고 密船을 타고  
 便安히 日本에 건너갔다오하는 이 事實에 對  
 해서 어떻게 생각할하고 그렇게 가버히 國民  
 앞에 諒解를 求하고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  
 지않는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  
 를 다 제쳐놓고라도 이렇게 國民全體의 疑惑  
 을 자아내고 또 外國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名譽를지 못한 結果가 왔다오하는 이 事實에대  
 해서 責任을 國務委員會를 更迭할程度까지 느낀  
 다면 마땅히 責任者인 自身은 國會에 나와서  
 어떻게 이렇구 나는 責任을지고 그 責任지는  
 方法에 있어서 國務委員 아누를 更迭하겠소  
 여러분이 諒解를 求합니다 이런 程度는 가  
 만 이것이 國會에대한 即 國民에대한 內閣責任  
 制的인 責任政治運營의 方式이지 그래 앓아가  
 지고 自己 호주머니것이 무엇 개내주듯이 이  
 사람 불러다가 이 長官한자리 해라 저놈이  
 일없으니 罷免시킨다 우리는 모르겠어 이것이  
 內務長官이 罷免當할일인지 法務長官은 責任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에 와가지고는 없는지 없  
 다면 그 理由는 어찌서 지금은 없어졌는지  
 自己메끼리 國務會議에 들어가려고 辭表 尙장  
 내고 들어고 返戻하고 받고 안받고하는 그것  
 은 別 문제예요 저어도 우리가 制度를 이렇게  
 게 고쳐는 以上에는 制度에 충실한 이러한 方  
 式으로서 政政가 運營이되고 이 政治를 해나가야



反民主行爲者公民權制限法案審查特別委員會

委員長 李 泰 鎔 議員

○議案

△議案提出

一、中小企業育成特殊資金運用特別會計法案  
財政經濟委員會에 付託함

一、政治運動에 關한法律中改正法律案

內務委員會에 付託함

(以上二件 十一月二十二日字 政府提出)

一、國務總理出席要求에 關한件

(十一月二十三日字 尹濟述議員外十一人提出)

張曉根被告의 海外逃避事件의 真相을 糾

明하고 責任所在 및 對策을 講究하기爲한

國務總理의 出席要求

△議案審查

一、檀紀四二九四年度豫算案

(十一月二十二日字 財政經濟委員長 桂珖

淳議員報告)

審計院所管·歸屬財產處理特別會計·舊皇室

財產管理特別會計·公務員年金特別會計·政

府保有外國換管理特別會計·國庫債務負擔行

爲(專賣事業特別會計) 및 移越明許費(專賣

事業特別會計) 七 原案대로 通過함

務部所管·經濟復興特別會計(財務部所管) 및

國庫債務負擔行爲(財務部所管) 七 修正通過

키로 議決

豫算決算委員會에 付託함

一、反民主行爲者公民權制限法案

(十一月二十三日字 反民主行爲者公民權制

限法案審查特別委員長 李泰鎔議員報告)

修正키로 議決

一、第一九回產業復興國債發行에 關한同意案

修正同意키로 議決

一、第十四回建國國債發行에 關한同意案

條件附로 原案대로 議決

(以上二件 十一月二十一日字 財政經濟委

員長 桂珖淳議員 報告)

豫算決算委員會에 付託함

○請願

△請願受理

一、寺刹自耕農地確保立法措置에 關한請願

(四二九三年十一月十四日字 朴碧眼外一人

으로부터 鍾鎮漢議員外一人의 紹介로 提出)

農林委員會에 付託함

一、生命保險에 關한諸稅法改正에 關한請願

(四二九三年十一月十七日字 姜義秀로부터

桂珖淳議員의 紹介로 提出)

財政經濟委員會에 付託함

一、教育法及教育稅法改正과 國民學校敎員의 待

遇改善에 關한請願

(四二九三年十一月十四日 尹亨模外五十四

人으로서 曹泳珪議員의 紹介로 提出)

財政經濟·文教兩委員會에 付託함

△請願審查

一、拿捕船舶保管管理에 關한請願

(四二九三年十月十七日字 張壽起外二人

로부터 朴順天議員外五人의 紹介로 提出)

(十一月十九日字 商工委員長 金奉才議員

報告)

○書翰

△書翰接受

十一月二十三日字 朴浚圭議員으로부터 憲法  
改正案을 贊成한다는旨의 書翰을 보내어  
왔음

同委員會所管의 아니므로 法制司法委員會  
에 付託키로 議決